살림밑천이 위험하다!

막5:1-20(17)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살림밑천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살림밑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림밑천은 무엇입니까?
큰딸이에요? 아니면 막내딸? 아니면 시댁이 아주 부자입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법니까, 아니면 연금입니까?
이 살림밑천이 위험합니다.
살림밑천이 든든할 때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살림밑천에 근거된 삶의 안정감을 예수님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살림밑천이 두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살림밑천을 예수님은 제거하십니다.
내가 그 살림밑천에 근거된 안정감을 갖고 있는 한, 그 살림밑천은 반드시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밑천이 든든하게 있으면 빨리 내 마음을 '살림밑천 때문에 든든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살림밑천 때문에 드는 안정감을 버리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살림밑천은 제거되기 때문에.

자, 2000마리 돼지 떼가 몰살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 떼가 몰살된 것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에요.
군대 귀신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온전케 하여 주신 것이 핵심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마리의 돼지 떼가 몰살된 이 내용으로부터 본문을 한번 접근해 들어가 봅니다.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돼지 떼를 몰살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에 저촉이 될 만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에 나온 것이 없다', 즉 하나님아버지가 주인이시면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입장으로 삶을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과제 앞에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늘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성전세

를 안 내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오해하니까 물고기를 잡아 거기서 나온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지만 그 입장을 드러내며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귀신들이 무덤 사이의 광인에게서 나가려면 꼭 돼지 떼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간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들어갔다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귀신이 나가는데 꼭 돼지 떼의 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귀신들이 머물 수 있기 위해서 돼지 떼의 몸이라도 꼭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꼭 귀신의 사정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은 귀신에게까지 미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 몸에 거하는 게 최고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정에 따라 돼지의 몸도 필요하다고 하면, 귀신과 예수님이 거래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deal을 하십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대신에 내가 돼지 떼에는 들어가도록 허락해주마!' 또, 돼지 떼에 들어가겠다고 귀신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 간의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귀신들도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허락받고 들어갔으면 쫓겨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고 그저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잘살면 되지, 왜 돼지 떼를 몰살시킵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돼지 떼를 몰살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돼지 떼를 몰살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 떼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람

의 생명값이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돼지 떼와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귀신과 거래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의 사정을 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들이 또한 돼지 떼를 몰살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원해서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돼지 떼를 바다 속으로 처넣을 만큼 귀신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졸로 알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돼지 떼를 몰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돼지 떼는 원래 예수님께서 몰살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였어요.
이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돼지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셨는데,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어차피 돼지 떼는 다 몰살시킬 거니까.

그러면 왜 남의 재산인 돼지 떼를 함부로 몰살시키신 겁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를 죽게 하시잖아요?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인데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의도와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당신의 주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돼지 떼의 주인들이 있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돼지 떼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 하실 때, 주님은 당신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돼지 떼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지요, 원래 그게 예수님 건데…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당신의 주권자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이 돼지 떼를 몰살시키셨을까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지역 전체를 예수님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신의 지배력에 실질적인 효과의 핵심이 바로 돼지 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즉, 돼지 떼를 이용해서 귀신이 그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 어느 작은 한 마을이었겠지요,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의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전체,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 전체를 지배하는 귀신의 지배력에 구멍을 내시기 위하여 돼지 떼를 몰살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귀신이 이 조그만 마을의 전체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에 돼지 떼를 활용하고 있었을까?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나오지만 거라사인 지방의 여러 마을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군대 귀신들린 이 광인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무덤과 인접한 마을이었고, 이 돼지 2000마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소유였을 것이고, 어느 한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의 생활 밑천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림밑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고 계신 거라사인 지방의 이 마을 사람들의 살림밑천이 바로 돼지 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살림밑천을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살림밑천이 뭡니까?
살림밑천이 두둑해야 불안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이게 바로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승천하신 예수님과 천사들이 볼 때에 이 세상 안에서 살림밑천이 두둑하다고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는 것, 이 세상 안에서 안정감의 이유를 갖고 있거나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거라사인 지방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의 미친 짓만

큼이나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들린 것이고, 귀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특징은 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한 살림밑천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비약된 것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은 복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이지요, 동쪽이 이방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기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풍랑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풍랑 만난 사건과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마가는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풍랑 만난 사건에서, 일엽편주에 몸을 의지하고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채만 한 풍랑이 배를 덮을 때, 무서워 떨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잠을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십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잘못되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고 나무라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배에 몸을 의지하고 안정감을 찾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왜 배 위에 몸을 싣고 있다고 해서, 안정감을 배에서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위험에 빠졌다고 무서워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이 든든해하고 안정감을 찾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미쳤다는 겁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고 안정감을 누리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미치신 것 같아요.
아니, 은행에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찾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안정감과 안심, 평강의 근거가 이 세상 경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지배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은행에 돈이 많다고 안정감을 찾는 것,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작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근거되어있는 살림밑천, 이 세상 속에서의 살림밑천에 근거된 안정감을 미친 마음이라고 보는데, 왜 우리는 정상이라고 보게 됩니까?
바로 군대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군대귀신에서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인데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라 '우리 이름은 군단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들은 군인들입니다.
귀신들 중에 군인들인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군단이라는 게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들인데 군단으로 이름 지어질 만큼 숫자가 많은 귀신들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 귀신들이 무얼 하느냐?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의 귀신의 지배력을 튼튼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냅니까?
한 사람을 골라서 무덤 사이에 두고 온갖 미친 짓을 다 하게 합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자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짓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에서 돼지 떼 2천 마리를 키워서 살림밑천이 두둑하다고 그 위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자기들은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한 줄 아십니까?
귀신들리면 다 미친 짓 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도 귀신들린 자가 있어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웃통도 벗고 뛰어다니게 만들고 그러지요?
그거 군대귀신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짓을 하게끔 하면서 내가 미친 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들린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아버지를 믿고 천국을 가까이 갖고 왔는데도 배 따위에 몸을 의지하고 배가 풍랑 만났다고 무서워하는 꼴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해 둔 돈이 없다고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게 예수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연 누가 미친 걸까요?
우리는 귀신들렸어요, 이 세상 안에서 자식의 일이 잘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하다, 그거 귀신들린 거예요.

그런데 왜 정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군대귀신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방어막을 칩니까?
한 사람을 골라서 '귀신들리면 이런 짓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광적인 행동을 하게끔 함으로써 나는 정상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내 안의 귀신의 지배를 튼튼히 해가는 겁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처럼 귀신의 나라를 방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살림밑천을 내 안정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들린 자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내 마음을 근거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정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밑천이 든든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예수를 믿지 말거나 예수를 믿으려면 그 살림밑천을 예수님께서 돼지 떼 2천 마리처럼 몰살시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 살림밑천에 대해서 죽으세요, 자꾸 죽어서 겨자씨처럼 작게 느껴지는 천국이 가장 큰 현실로 다가와서 내 마음의 안정이 천국이 되게끔 만드세요.
십자가 붙잡고 무조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도 죽고, 이 세상에 근거되는 안정감을 죽여야 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이라면 '아,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든든해, 내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든든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가는 그러면서 예수를 계속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기반을 얻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지 마세요!
그래야 그걸 안 뺏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끝까지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린 삶을 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살림밑천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돼지 2천 마리처럼.
그래서 풍랑 만난 배에서의 사건과 그 풍랑 만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이방적 자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 또 믿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마가가 딱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살림밑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살림밑천은 오직 천국이 겨자씨처럼 시작됐다가 겨자나무처럼 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살림밑천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으면 돈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살림밑천, 조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온전히 죽게 하시고, 내 마음의 안정과 평강은 오직 천국에 근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